

정답	나형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②	④	④	②	③	③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④	④	②	①	②	③	④	①

해설

- 문제유형: 어휘 - 동의어 찾기
 정답: ①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① in combination with(~와 결합하여, 함께)
 = in conjunction with(~와 함께)
 ② in comparison with(~와 비교하여, ~에 비해서)
 ③ in place of(~을 대신하여)
 ④ in case of(~의 경우에)
- 문제유형: 어휘 - 동의어 찾기
 정답: ②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② ubiquitous(어디에나 있는, 보편적인, 만연한)
 = pervasive(만연한)
 ① deceptive(기만적인, 현혹하는, 속이는)
 ③ persuasive(설득력있는)
 ④ disastrous(재앙의, 재앙적인, 재난의)
- 문제유형: 어휘 - 동의어 찾기
 정답: ②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② annoyed(화난, 성난, 짜증난)
 = vexed(골치아픈, 화난, 짜증난, 초조한)
 ① callous(냉담한)
 ③ reputable(평판이 좋은)
 ④ confident(자신감있는)
- 문제유형: 어휘 - 논리형 빈칸
 정답: ④
 해석/어휘: 한 무리의 젊은 시위자들이 경찰서를 부수고 침입하려 시도했다.
 해설:
 ④ break into(침입하다, 부수고 들어가다)
 ① line up(줄을 서다)
 ② give out(바닥이 나다, 동나다, 힘이 빠지다, 멈추다)
 ③ carry on(계속 가다, 움직이다)

- 문제유형: 독해 - 내용일치(일치하는 것 찾기)
 정답: ④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④ Slavery existed even in African countries.
 (아프리카에서도 노예는 존재했다) : 본문의 마지막 문장인 "slavery was also an institution in many African nations." 부분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① African laborers voluntarily moved to the New World.(아프리카 노예들은 자발적으로 신세계로 이주했다.) : 본문의 초반부에 아프리카인들이 신세계에 노예로 갔다는 말은 있지만 자발적이라는 말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② Europeans were the first people to use slave labor.(유럽인들이 노예 노동력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 본문 중간 "earlier~부터 보면 유럽보다 고대 이집트에서 먼저 사용했다고 나오고 있으므로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 Arabic slavery no longer exists in any form.
 (아랍 노예는 더 이상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지 않는다.) : 본문 중 후반부에 "Arabic slavery continues into ~" 부분에서 여전히 일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문제유형: 문법 - 정오형(옳은 것 찾기)
 정답: ②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② I was born in Taiwan, but I have lived in Korea since I started work.
 "since S 과거동사"를 쓰면 주절에 현재완료를 써야하므로 I have lived는 올바르게 쓰였다. 태어났다는 was born도 올바르게 쓰였다.
 ① This guide book tells you where should you visit in HongKong.
 "where should you visit~"부분은 tell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로써 의문사절이 명사절로 쓰이면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순으로 쓰여야 하므로 "where should you" → "here you should" 로 바뀌어야 한다.
 ③ The novel was so excited that I lost track of time and missed the bus.
 "감정동사는 주어가 사람이면 p.p. 사물이면 -ing를 써서 분사로 표시한다. 주어가 novel(소설) 즉 사물이므로 excited(흥분된)을 exciting(흥분시키는)으로 바뀌어야 한다.
 ④ It's not surprising that book stores don't carry

newspapers any more, doesn't it?

부가 의문문은 앞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주절의 동사가 "s" 즉 be 동사 이므로 doesn't를 is로 바꿔야 하고 주절의 동사가 부정이면 부가의문문은 긍정으로 바뀌어야 하므로 "is it"으로 바꿔 주는 것이 적절하다

7. 문제 유형: 독해 - 제목찾기

정답: ③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③ 본문의 시작부터 따듯해지는 온도와 산소의 손실로 해양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중간부터도 따듯해진 바다가 산소부족을 일으키며 바다에 끼치는 영향(물고기 개체수의 감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③번의 "Climate Change May shrink the World's Fish(기후 변화는 세계의 물고기를 줄일 것이다)"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① Fish Now Grow Faster than Ever(물고기는 현재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언급은 되어있지만 본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② Oxygen's Impact on Ocean Temperatures(해양 온도에 끼치는 산소의 영향) 온도의 증가가 산소 부족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므로 반대가 되어야 한다

④ How Sea Creatures Survive with Low Metabolism. (해양 생물들이 낮은 신진대사를 가지고도 생존하는 방법) 본문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8. 문제유형 : 문법 - 밑줄형(옳지 않은 것 찾기)

정답: ③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③ Contrary to which many believe ~ : which는 주로 관계대명사로 쓰이고 관계 대명사 일 땐 앞에 선행사가 나와야 하므로 위의 문맥에서는 쓰일 수가 없다 만약 "Contrary to"는 ~에 반대로/반해서 라는 하나의 표현이다.

① its potential is beginning to be realized. ~ : to 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로 뒤에 목적어도 없고 올바르게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해석해보도 올바르게 쓰였다.

② it involves creating work and ~ : 동사 involve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쓸 수 있으므로 위 문맥에선 올바르게 쓰였다.

④ is often taken ~ and made productive. : made는 and를 통해 is taken ~ made로 병렬되어 있어 made 앞에 is가 생략되어 있어 올바르게 쓰였고 made를 5형식으로 썼을 때 목적격보어인 형용사 productive(생산적인)가 나오는 것도 올바르게 쓰였다.

9. 문제 유형 : 독해 - 문장삽입

정답: ④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예를 들어, 뉴저지의 주립 기록 보관소는 3만개 이상의 종이기록과 2만5천개 이상의 마이크로필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 ④번 앞 문장에서 "많은 주 및 지역 기록도서관은 공공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언급하므로 이에 대한 예시로 주어진 문장이 ④번에 들어가는게 가장 적절하다.

10. 문제 유형 : 문장 삭제(흐름상 어색한 문장)

정답: ④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burnout 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이것이 미치는 범위(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①번 앞까지의 burnout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①번 뒤에서부터 the first dimension ~, the second dimension, The third dimension~ 으로 이것이 미치는 범위(규모)에 대한 설명을 하므로 보기 ②, ③번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나 보기 ④번은 burnout과 관련없는 반대의 내용(감정 노동자들은 몸이 힘들어도 동기를 부여 받은 채로 일을 시작한다)을 쓰고 있어 ④번이 글의 전체적인 문맥과 어긋난다.

11. 문제 유형 : 생활영어(빈칸형)

정답: ①

해석/어휘: 추후제공

전반적인 상황은 A가 B에게 지난밤에 주방청소 확인상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으로 마지막 빈칸에는 B가 사과하며 보기 ①번의 "I won't let it happen again(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으로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2. 문제 유형 : 생활영어(빈칸형)

정답: ②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A가 감기에 걸린 B에게 비강 스프레이를 추천하는 내용이지만 마지막 B의 내용이 코에 뭐 넣는 것을 싫어한다고 얘기하므로 그 앞 빈칸에는 비강스프레이를 싫어한다는 말이 와야 가장 자연스럽다. 보기 ② "No, I don't like nose spray."

13. 문제 유형 : 독해 - 내용일치(일치하지 않는 것 찾기)

정답: ④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④ The Atacama Desert is one of the rainiest deserts.

(Atacama Desert는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사막 중 한 곳이다.) : 본문의 중 후반부에 "The driest deserts, such as Chile's Atacama Desert" 부분에서 알 수 있는 Atacama 사막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라 가장 비가 오지 않는 곳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보기 ④번이 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There is at least one desert on each continent.

(적어도 각 대륙마다 하나의 사막이 있다.) : 본문의 첫줄 내용 "Deserts cover ~ on every continent." 부분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The Sahara is the world's largest hot desert.

(사하라 사막이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사막이다.) : 본문 중반 부 사하라 사막이 언급된 부분에서 "The largest hot desert"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③ The Gobi Desert is categorized as a cold desert.

(고비 사막은 추운 사막으로 분류된다.) : 본문 중반 부에 "some deserts are always cold ~", 부분에서 Gobi사막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14. 문제 유형 : 문법 - 영작 (가장 잘 옮긴 것)

정답: ④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④ Cindy loved ~, and so did her son"

So + 동사 + 주어 (~도 그러하다)의 표현이고 어순도 올바르게 did는 앞의 본동사 loved를 대신 받고 있어 동사도 올바르게 쓰였다.

② "He said he would rise my salary ~"

동사 rise는 자동사 이므로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없다. rise는 raise로 바뀌어야 한다.

① "I look forward to receive your reply ~"

look forward to에서 to 는 전치사 이므로 동명사 또는 명사를 써야한다. receive를 receiving으로 바꿔준다.

③ "his plan for the smart city was worth considered"

be worth -ing 구문으로 수동의 문맥이라면 "was worth being p.p."로 해주는 것이 맞다.

15. 문제 유형 : 문법 - 영작(가장 잘 옮긴 것)

정답: ②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② "It was such a beautiful meteor storm that ~"

"such a 형용사 명사 that S V" 표현으로 올바르게 쓰였다.

① "Rich as if you may be ~"

"형용사 as S V (아무리 ~일지라도)" 의 표현으로 if 를 삭제해야 한다.

③ "Her lack of a degree kept her advancing"

한글에서 "그녀의 성공을 방해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방해하다 표현은 "keep A from -ing"의 형태로 써야한다

④ He has to ~ on if or not ~"

if 와 or not을 붙여 쓸 순 없다. if를 whether로 바꿔 주거나 or not을 뒤로 보내야 한다.

16.

문제 유형 : 독해 - 빈칸

정답: ①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영국인들이 자기 분수에 넘치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과 그에 관련된 문제점을 쓰고 있는 글이다. 빈칸 문장 바로 뒤에서 영국인들은 1년에 30만개 이상의 옷을 버린다고 하므로 바로 앞 빈칸에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매한다는 문맥이 와야 가장 적절하므로 보기 ①번의 "they don't need" 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7.

문제 유형 : 독해 - 빈칸

정답: ②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빈칸 뒤에 "as price rise(가격이 오르면)"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빈칸에는 "which makes an escalation of price inevitable(가격상승을 필수적으로 만드는)"이 와야 적절하다

빈칸 앞의 예시와 빈칸 뒤의 괄호 친 부분의 내용도 힌트가 될 수 있다 빈칸 앞의 For example의 사례에서 "요리사, 종업원 바텐더는 오직 그들이 수행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언급하므로 빈칸에도 똑같은 관계를 가진 내용이 와야하므로 "그러므로 오직 적절한 절약은 향상된 효율성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것은 가격 상승을 (필수적이게) 만든다."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18.

문제 유형 : 독해 - 글의 순서

정답: ③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주어진 문장에서 인간 언어가 유인원이나 원숭이 등의 언어와는 구별된다고 하며 다른 어떤 동물의 언어보다 더 정교하다고 한다. (A)와 (B)에서는 어떤 역접 접

속사도 없이 인간이외의 다른 많은 종들의 언어도 복잡한 의사소통 체계를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 바로 뒤로 올 순 없다 (C)에서 먼저 주어진 첫 문장을 보충설명해주는 내용으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도 기본적인 언어체계만을 습득한다고 하는 것이 맞으며 (C)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언어라는 복잡성을 받는 내용으로 (A)의 많은 종들이 그들의 자연환경에선 복잡한 언어 체계를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B)의 그들은 훨씬 더 복잡한 체계를 배울 수 있다고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19. 정답: ④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글의 중반부 'Globalization'이 언급된 부분부터 글의 주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제화가 무역을 증가시키지만 많은 비평가들은 이것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환경문제에 무관심하게 하며 개발도상국들을 독점적인 자본주의의 형태를 띠게 한다고 하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또 그 다음에서 많은 급진파들이 이에 반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며 환경운동도 점점 중요해진다고 글의 후반부에서 언급되고 있으므로 글의 주제는 보기 ④번의 "The exploitative characteristics of global capitalism and diverse social reactions against it.(국제 자본주의의 착취적인 특징과 그것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적 움직임들이 적절하다."

20. 정답: ①

해석/어휘: 추후제공

해설:

글의 초반부에서 Johnbull이 우연히 어떤 노란색 달걀 모양의 돌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가득차 그것을 만져보는 내용이 나온다. 중반부에서 Still~ 부분부터 여전히 그 돌은 Johnbull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광부에게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 광부는 그것을 간직하라 얘기하고 후반부에서 Johnbull이 계속해서 자갈을 파면서 종종 무거운 돌을 집어 들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다이아몬드 이지 않을까?! 하고 물음을 던지며 끝나고 있다. 글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 Johnbull지금 매우 흥분되고 호기심에 넘치고 열의에 찬 상태이므로 이를 표현한 보기는 ①번의 thrilled and excited(스릴 넘치고 흥분된) 으로 볼 수 있다.

총평

난이도 □ 매우어려웠다. □ 다소어려웠다. □ 평이했다.
■ 다소쉬웠다. □ 매우쉬웠다.

총평

어휘: 상대적으로 작년과 같이 무난한 어휘들이 출제되어서 기출 문제 및 어휘책을 꾸준히 외워오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휘는 어디까지나 개인 편차가 있으므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문법: 문법의 경우 지엽적인 문법이 아닌 핵심문법 위주로 출제 되었으며 주목할 점은 트렌드가 밑줄형 문제가 아니라 영작 / 정오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문법 문제의 수준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고 출제 범위도 동사, 접속사, 준동사, 관용표현 등 핵심 문법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문법공부는 핵심문법 위주로 해야함을 상기시켜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생활영어: 생활영어로는 2문제가 출제되었고 속어 및 표현형 어휘를 묻는 생활영어가 아닌 문맥을 통해 두문제 충분히 답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독해: 독해에서 확실히 몇몇 문제들을 통해 변별력을 즐려고 했던 것이 보여지며 그 문제들(17번, 19번, 20번)을 제외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평이했던 수준의 독해였다고 생각합니다.(작년 기출과 비교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수험생의 개인 실력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도 단어에서 어려움이 있어 해석이 안될 수 있었습니다. 또 17번 같은 경우는 문맥도 정확히 파악해야하고 추론도 했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외에 내용일치나 삭제,삽입,순서배열 문제유형은 무난했다고 생각됩니다.

총평: 전체적으로 독해에 몇몇 변별력있는 문제를 제외하면 무난한 시험이었으며 이 추세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 영어공부의 핵심은 단어+핵심문법+해석(구문독해) 위주로 해야함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틀린 부분을 약점으로 삼아 보완하고 다음 시험에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